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9. 20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터키, 동남부 디야르바크르州에서 폭탄테러 발생
 - 9.13 터키 정부는 동남부 디야르바크르州 쿨프지역에서 도로 위에 PKK(쿠르드노동자당)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급조폭발물(IED)이 터져 7명이 사망하고, 9명이 부상했다고 발표

미주

- 美 재무부, 테러와 관련된 개인·단체 제재 강화
 - 9.10 재무부는 “ISIS·알카에다·하마스 등 15개 테러단체와 관련된 개인·기관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”고 발표
 - * 이들과 美 기업 간 거래금지 및 금융시스템 접근 등 엄격차단
- 美 국무부, 알카에다 연계 무장단체 고위간부 현상금 제시
 - 9.12 국무부는 알카에다 연계 ‘후라스 알-딘’ 주요 지도자 3명의 소재 등 관련정보 제공시 500만 달러(약 60억원)를 지급한다고 발표
 - * ‘후라스 알-딘’은 시리아 기반 ‘알카에다’ 연계 강경 이슬람 무장단체
- 美, 「빈라덴」 아들 「함자」 대테러 작전으로 사망 공식 확인
 - 9.14 「트럼프」 대통령은 9·11 테러를 주도한 「오사마 빈라덴」의 아들 「함자 빈라덴」이 미국의 대테러 작전으로 사망했다고 발표
 - * 美 국방부는 올해 2월에 100만 달러의 현상금 수배

아·태평양

○ 인도, 잠무-카슈미르 테러모의 혐의 3명 체포

- 9.13 현지언론은 잠무-카슈미르지역으로 진입하는 트럭에서 AK-56 및 AK-47 소총 6정과 탄약 180발을 발견,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자이시-에-무함마드(JeM)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3명을 체포했다고 보도

중 동

○ 아프간 軍, 미군과 합동으로 탈레반 소탕작전 실시

- 9.15 로이터통신은 「트럼프」 대통령의 평화협상 종료선언 후 미군의 지원을 받은 아프간軍의 공습으로 탈레반 고위 지휘관 2명을 포함한 최소 38명의 조직원이 사살됐다고 보도

○ 아프간 탈레반, 국제적십자위원회 활동 금지조치 철회

- 9.15 탈레반은 성명을 통해 “아프간內 국제적십자위원회(ICRC)의 구호활동 금지령을 해제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한다”고 발표
* '19.4 탈레반은 ICRC와 WHO의 아프간內 활동을 금지

○ 아프간, 정부 건물 겨냥 자폭테러 사건 발생

- 9.18 AFP는 동부 낭가르하르주 잘랄라바드 지역의 선거등록센터에서 자폭테러 공격이 발생, 여성·어린이 등 최소 12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보도

아프리카

○ 소말리아, 총리 겨냥 테러사건 발생

- 9.15 현지 언론은 남부 로워샤벨레주에서 알샤바브가 「카이레」 총리를 겨냥한 테러공격을 자행,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
* 총리 일행은 피해 없이 탈출하여 수도 모가디슈로 복귀

○ 튀니지 정부, 알카에다 추종자 사살

- 9.16 튀니지 정부는 알카에다 이념 전파 및 테러범 모집활동에 앞장선 현지 테러단체 ‘우크바 이븐 나피’ 소속 남성을 모나스티르市에서 사살했다고 발표

아프간, 美 대사관 등 대상 연쇄복합테러

- '09.9.13 13:30경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중무장한 테러범들이 美 대사관 및 나토 국제안보지원군(ISAF) 본부 등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여 경찰관 4명 등 6명이 사망하고, 20여명이 부상
 - 10여명의 테러범들은 美 대사관에서 약 1Km 이격된 9층 건물 위에서 로켓포 등을 이용하여 공격하였고
 - 대사관이 밀집되어 있는 와지르 아크바르 칸 지역과 카불 서부 경찰서 2곳에서도 연쇄 자살폭탄테러가 발생
- 테러범의 공격은 다음날 오전까지 20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미군과 아프간군은 헬기까지 동원하여 테러범 9명을 사살
- 同 테러는 탈레반과 연계된 무장그룹 '하카니 네트워크(HQN)'의 소행으로 밝혀졌으며, 외신은 9·11 테러 10주기를 계기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테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

< 하카니 네트워크(HQN) >

- (목표) '70년대 아프간 내 서방세력 축출 및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
 - * '12년 UN·미국, '14년 영국, '15년 캐나다에서 테러단체로 지정
- (연계세력) 탈레반, 알카에다, 파키스탄 탈레반, 라쉬카르 에 타이바 등
- (핵심인물) 잘랄루딘 하카니(창설 및 최고지도자)
 - 시라주딘(잘랄루딘의 큰아들, 탈레반 부총사령관)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(北와지리스탄 미람샤)을 근거지로 아프간 동부 3개 州 (팍티야·팍티카·코스트)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카불 공격을 주도
- (주요활동) ① '08.7 카불 인도 대사관 차량 대상 자폭테러로 198명 사상,
 - ② '12.4 카불 고층건물에서 각국 공관 등을 공격하여 52명 사상,
 - ③ '15.8 카불 시내 압둘하크 교차로에서 폭발물 적재차량으로 미군 용역업체 차량에 자폭하여 109명 사상